

민족독립에 바친 靑春... 묻혀있던 이름 찾기 국가가 나선다



운동 주도한 성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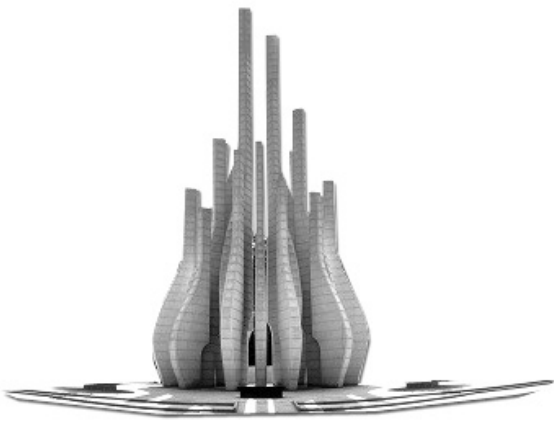
삼엄한 일제 경계



시위 주도학생 재판 다룬 당시 언론 보도



대구형무소 출옥 기념 사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지난해 첫 정부 주관 행사... 본격 위상 찾기
유공자 기준 완화... 전국 55개교 전수조사
광주·전남, 광주일고·전남여고 등 6곳
을 北 학생 초청 남북공동 기념행사 추진

1929년 11월 3일 발발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올해로 90주년을 맞는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6년 6·10만 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민족독립운동)으로 꼽히지만 정권 성향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되는 등 제대로 된 평가와 예우가 뒤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후 지난해 89주년 기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것을 시작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위상 찾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했던 유공자 선정 심사 기준을 완화해 묻혀있던 유공자 찾기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의와 향후 기념사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가 관심을 소홀히 하던 시기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주관했던 광주시교육청은 90주년을 맞아 남북학생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0주년 기념식에 당

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북측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남북공동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0년 전 광주 학생들이 '항일의 깃발'을 들고 펼쳐 일어나 민족 독립을 외쳤다면, 이제는 '평화의 깃발'을 들고 남북 평화를 노래하자는 것이다.

◇묻혀있던 유공자, 정부가 발굴 나선다- 정부가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누락된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발굴에 나선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수의 유공자를 포상에서 누락시켰다는 지적 등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 유공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12월 5일 "학생독립운동 참여자 발굴을 위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정해 '일제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를 유공자 포상 기준으로 추가했다. '수형·육고 3개월 이상'이라는 기존 포상 심사 기준 때문에 학생독립운동 참가자 상당수가 포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행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참여로 퇴학을 당한 경우 포상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전수조사 대상은 전국 166개 학교 중 학적부가 국가기록원 또는 학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55개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제일고(옛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광주자연과학고(광주공립농업학교), 전남여고(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나주초(나주공립보통학교·나주농업보통학교), 전남대 여수캠퍼스(여수공립간이수산학교) 등 모두 6곳이다.

보훈처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2개 학교 학적부를 먼저 조사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학생운동 진원지인 광주부터 서울·경남 순으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된 22개 학교 독립운동 관련 처벌자는 400여명으로, 이 중 85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적(제적)부에는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휴학 등 구체적인 처벌사유와 징계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학생 개인의 항일 독립운동 참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보훈처는 학생독립운동으로 확인된 퇴학자는 3·1운동

100주년 및 항일학생운동 90주년이 되는 내년 학생운동 계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완화된 기준으로 새롭게 선정될 유공자 못지 않게 사회주의 계열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선정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사회주의 활동자 포상은 지난 2005년 3·1절에 여운형 등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54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주의 계열 인사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하다 4년간 옥살이를 한 장재성(광주고보 졸업생) 선생조차 해방 이후 행적을 문체 삼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기준 학생독립운동 유공자는 모두 427명으로 건국훈장 246명, 건국포장 56명, 대통령 표창 125명이다.

◇90년 전 학생이든 '항일의 깃발', 이젠 '평화의 깃발'로 - 9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즈음해 북측 학생들을 광주로 초청하는 남북청소년 교류사업이 추진된다.

남북 모두가 기념하는 항일운동의 하나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매개로 내년 가을 북측 학생들을 광주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자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념행사를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제안하고 북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시교육청이 제안한 내년 9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는 4박 5일 일정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9~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북측 학교 학생대표 100명을 비롯한 학교관계자 300여명, 남측 학생대표 300명 등 총 1000명 안팎의 참석자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 제 9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기간 남북학생들이 1929년 학생독립운동 참가 학교를 함께 방문하고 학술대회도 연다는 구상이다. 남북학생들을 위한 기념음악회, 남북학생 농구대회 등 체육행사, 환영·송별 만찬도 계획에 담겼다.

남북학생 및 관계자 항공료, 체류비를 포함해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비가 다소 고민이나 북측 참가가 성사되면 시교육청 자체 예산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남북 공동 기념행사 개최와 함께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남북 공동 연구도 검토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나주 통학열차 韓 학생-日 학생 충돌 도화선
194개교 전국 학생 절반 참여... 만주 등 해외로 확산
3·1운동·6·10만세 운동과 '3대 항일운동'으로 꼽혀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뿔어나간 학생 주도의 항일 시위다. 1919년 3·1운동, 1926년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운동(민족독립운동)으로 꼽힌다.

1930년 상해임시정부 국무령 김구 선생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침체된 독립운동을 진작시키고 상해임시정부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한 내용의 편지가 지난해 공개(광주일보 2018년 8월 14일 2면)되기도 했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어난 광주교 등보통학교(현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생들의 충돌이 도화선이 됐다.

11월 3일 일왕 메이지 생일인 명치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 후 광주 시내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서울, 개성, 부산, 진주, 청주, 광주, 대전, 홍성, 예산, 조치원, 부여, 전주, 정읍, 고창, 이리, 평양, 신의주, 정주, 선천, 영변, 함흥, 원산, 경성, 대구, 춘천 등에서 동맹휴교나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194개 학교가 참가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참가학

생 수는 5만4000명으로 당시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 규모다. 국가보훈처는 시위 참여로 퇴학을 당한 학생이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강제전학 298명, 검거 1600여명(광주 170여명 실험)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 일제강점기 학생이 주도한 항일운동으로 만주 등 해외까지 뿔어나간 광주학생운동의 경우 '나주에서 촉발되고 광주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권 성향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된 것도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기념식에서 "학생의 날"은 정권에 따라 기록을 겪었지만, 기념행사는 광주교육청이 주관했다. 그날의 이름이 '학생의 날'이고, 학생독립운동이 광주에서 시작됐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세상의 이해와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2·28대구민주운동 기념식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3대 항일 독립운동임에도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정부 기념식답게 격에 맞게 치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